



최고의 싸움닭이 되는 조건 목계지덕(木鷄之德)



박재희
인문경영원 대표

- 성균관대 철학박사
- (전)포스코 석좌교수
- (전)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
- 인문경영원 대표
- 흥천 Salon In Moon 대표

삼성그룹의 창업자 호암 이병철 회장의 집무실 벽에는 닭 한 마리가 그려진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그림 옆에는 목계(木鷄)라는 한자어가 쓰여 있었다. 나무(木)로 만든 닭(鷄).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단어다. 장자 우화에 나오는 최고 싸움닭을 목계라고 한다. 나무로 깎아 만든 닭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목계는 경영자의 덕목과 많이 닮았다. 조급함을 버리고, 감정의 기복을 통제하고, 나무토막처럼 미동도 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을 공격하여 한 방에 제압해 버리는 최고의 싸움닭, 목계는 성공한 경영자의 모습이다. 이병철 회장은 3남 이근희 회장을 후계자로 정하고, '목계'와 '경청(傾聽)'이란 경영의 화두를 전하였다.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목계의 정신을 유지하고,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유훈이었다.

정말 강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지 않는다. 남에게 자신의 용기와 능력을 떠들며 자랑하는 사람은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 썩 사람은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좀 부드럽고, 더 나아가서 도대체 상대방이 어떤 생각과 능력을 지녔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진정한 강자는 일단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다. 눈초리는 부드럽고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줄 알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빛나는 광채나 매서운 눈초리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무언가 근접할 수 없는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장자는 이런 사람을 '목계지덕(木鷄之德)'을 가졌다.'라고 정의한다. 한다.

'덕(德)'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목계지덕은 나무로 깎아 만든 닭처럼 완전히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지 않고, 어떤 충격과 공격에도 감

정을 통제하여 미동도 하지 않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능력을 말한다.

장자 <달생(達生)>편에는 최고 싸움닭, 목계를 조련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온다. 어느 왕이 투계를 매우 좋아하였다. 그래서 천하의 싸움닭을 구해 기성자(紀渻子)란 최고의 투계 사육사에게 훈련을 맡겼다.

십 일이 지나고 나서 왕이 가서 물었다. “닭이 싸우기에 충분한가?” 사육사는 단호히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닭이 강하긴 하나 교만하여 아직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만을 떨치지 않는 한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헛된 교만과 기운을 믿고 뽐내는 자세를 버리지 못하였다는 대답이었다.

또 십 일이 지나서 왕이 가서 물었을 때 사육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직 멀었습니다. 교만함을 버렸으나 상대방의 소리와 그림자에도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상대방의 소리와 그림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였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십 일이 지나서 왕이 묻자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교만과 조급함을 버렸으나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입니다.” 상대방과 싸우려는 공격적인 눈초리를 아직 못 버렸다는 것이었다. 조바심이 난 왕은 십 일이 지나고 가서 또 물었다.

그때 사육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교만과 조급함은 사라졌고, 상대방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 반응을 하

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마음의 평형을 찾았습니다. 나무와 같이 아무런 감정도 표정도 쉽게 내보이지 않는 목계(木鷄)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닭이라도 그 모습만 보면 싸우기 전에 도망갈 것입니다.”

장자의 이 고사에서 말하는 가장 최고의 투계는 목계(木鷄)다. 자신이 제일이라는 교만함을 제거하고, 쉽게 싸우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남의 소리와 위협에 쉽게 반응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눈초리를 버린 나무와 같은 목계는 인간으로 말하면 완전한 자아의 성취와 평정심을 이룬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장자는 이런 상태를 현해(懸解)라고 한다. 현해는 감정과 조바심에 매달려(懸)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解)되었다는 뜻이다. 인간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기복에 시달린다. 슬픔(哀)과 기쁨(樂)의 굴곡이 끊임없이 나의 감정을 건드린다. 아침에는 기쁨에 넘쳐 노래를 부르다가 저녁에는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보통 인간이다. 이런 감정의 기복을 넘어서 애락(哀樂)이 끼어들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현해(懸解)다. 현해의 상태에 이르면 다가오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완전한 평정(平靜) 상태에서 맞이할 수 있게 된다.

노자는 이런 감정의 평정 상태를 만드는 것을 화광동진(和光同塵)이라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빛(光)을 누그러뜨리고(和) 상대방의 눈높이(塵)에 맞춘다(同)는 것이다. 능력과 재능이 있어 너무 잘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



다. 그 옆에 가면 눈이 부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능력이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 강하지만 자신의 강함을 상대방이 느끼지 못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날카롭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 상대방의 허점을 늘 지적하고, 복잡한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기에 옆에 있으면 늘 가지 방석에 앉아 있는 듯한 생각이 들게 한다. ‘너의 날카로운 감정을 꺾어버리고, 너의 복잡한 생각을 풀어 단순하게 하라! 너의 눈부신 빛을 조절하여 세속의 눈높이에 맞춰라!’ 노자가 강조하는 마음의 평정 방법이다.

손자병법에서는 목계의 상태를 움직이지 않는 산에 비유한다. ‘빠를 때는 바람(風)처럼 흐르고, 느릴 때는 숲(林)처럼 움직이고, 공격할 때는 불길(火)처럼 치고 들어가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태산(山)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기는 군대의 특징인 ‘풍림화산(風林火山)’의 기동 방식이다.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모습에서 목계의 강한 풍모가 느껴진다. 평소에는 움직이지 않는 묵직함이 있지만 한번 기동하면 상대방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상대방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강자의 여유로 맞이하기에 더욱 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 ‘부동여산(不動如山)’, 함부로 움직이지 않음을 태산처럼 하라! 경거망동하지 않고 내 안의 감정을 완전히 장악하여 대처하라!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이기기는 군대의 특징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 자신이 부와 지위에 발목 잡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남 앞에서 어깨를 세우는 사람, 내가 배운 게 많다고 자신의 목소리만 인정하고 떠들어 대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 그 자리에서 경쟁하여 위아래가 결정되어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라면 장자의 ‘목계(木鷄)’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무로 깎아 만든 닭처럼 진정한 고수는 감정과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소리 없이 제압하는 능력의 사람이다. 목계처럼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타인의 시선과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지도자가 절실한 요즘이다. 한번 움직이면 세상이 떨고 천하가 바뀌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함부로 내보여 상대방에게 방어 기회 주지 않는 그런 부동(不動)의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 **KMF**